

익산시 ‘조기 대선, 도약의 기회로’

지역 발전 견인할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선제적 대응나서
정현을 시장 “익산 발전의 기회... 공약 반영 총력 다할 것”



익산시가 조기 대통령 선거에 발맞춰 대형 국책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역 발전을 견인할 대형 프로젝트성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대선공약으로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시작으로 △스마트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프로젝트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구축 등 분야별 대선공약 사업을 준비해 현재까지 10여 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우선 ‘스마트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은 연구부터 교육, 창업,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형 생명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익산을 대한민국 그린바이오 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다.

익산은 국내 1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등 관련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적 강점을 지니고 있다.

시는 이번 구축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혁신센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융복합 비즈니스센터 △전연소재전주기 지원허브 등 4대 핵심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프로젝트’는 생태축 복원과 함께 한·영 협력사업 에덴프로젝트의 온실 정원 조성을 결합했다. 자연자원 회복을 통한 생태관광 중심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특히 생태도시 익산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국제적 관광수요까지 아우를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국립식품박물관 건립’도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식품산업의 대중화와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익산이 식품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구축’은 새만금과 내륙을 연결하는 철도 수송체계 확보를 통해 식품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K-식품벨트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기여하는 교통망 전략사업이다.

시는 향후 전북자치도와 외부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별 타당성 자료를 보강하고, 주요 정당의 정책담당자들과 전략적으로 접촉해 공약 반영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의 미래를 바꿀 국책사업들이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며 “꿈이 담긴 공약들이 현실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다다익선 장학생 선발... 다자녀가정 교육비 부담 덜다

익산사랑장학재단, 5자녀 이상 가구 대학생 학기당 100만원 장학금... 22일까지 신청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이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정책을 추진한다.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은 다자녀가정의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다익선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다익선 장학금 지원 대상은 본인을 포함해 형제·자매가 5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대학생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학기당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로 교육청소년과에 방문하거나, 익산시 누리집 통합예약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사랑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859-5820, 515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축제시민평가단 44명 위촉... 본격 활동 시작

24일 콩당보리 축제부터 암행 평가 진행

군산시는 오는 24일 콩당보리축제부터 축제시민평가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산시 축제시민평가단은 공개모집과 단체추천을 통해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 4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축제의 부족한 부분을 시민의 의견으로 채워간다’라는 의미를 담아 ‘군산축제채움단’이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활동한다.

‘군산축제채움단’은 12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콩당보리축제 △군산수제맥주 & 블루스페스티벌 △군산국가유산야행 △군산시간여행축제 등 군산시의 주요 축제와 행사에 참여해 암행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콘텐츠 △홍보 및 현장 운영 △지역사회 기여 총 3개 분야 16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제와 행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험한 후 각 항목에 대한 평가의견을 작성해 시에 제출하게 된다.

‘군산축제채움단’의 최종 평가 결과는 해당 축제를 주관한 부서와 공유되어 앞으로의 축제 운영 개선에 반영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수제 맥주 대표도시로 ‘주목’

코엑스에서 10~12일 대한민국 맥주 박람회서 홍보관 운영

6월 20~22일 ‘군산 수제 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 개최

대한민국 수제 맥주 대표도시로 떠오른 군산시가 제7회 대한민국 맥주 박람회(KIBEX 2025)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제7회 대한민국 맥주 박람회(KIBEX 2025)’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업계 관계자와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 군산시는 △국내 유일무이한 국산 맥아인 ‘군산맥아’ △‘군산맥아’를 이용한 ‘수제 맥주’ △6월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수제 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을 홍보하는 중이다. 특히 3개의 군산시 수제 맥주 창업업체(메인코브루잉·해적브루잉·운통양조)도 동참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박람회에서 군산시는 △국내 유일무이한 국산 맥아인 ‘군산맥아’ △‘군산맥아’를 이용한 ‘수제 맥주’ △6월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수제 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을 홍보하는 중이다. 특히 3개의 군산시 수제 맥주 창업업체(메인코브루잉·해적브루잉·운통양조)도 동참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홍보관에는 수제 맥주 애호가인 일반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국내 수제 맥주 13여 개 업체가 방편해 ‘군산맥아’ 구매 관련 상담을 청하는 등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관계자는 현대백화점의 경우 군산 수제 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 영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전국의 현대백화점 9개 아울렛 기획행사 개최와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주한 미국대사관의 농업무역관장 리사 알렌, (사)한국수제맥주협회의 이인기 회장이 홍보관을 방문 지속적인 교류와 마케팅 협력을 제안하여 앞으로 ‘군산맥아’의 수요처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황 관선 소장도 박람회에 참가한 각 지역의 수제 맥주 업체를 찾아 ‘군산맥아’의 우수성을 알리고 원료로 사용해 달라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가 제7회 대한민국 맥주 박람회(KIBEX 2025)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익산시, 농업인 경영 안정에 ‘팔 걷어’

농기계 보급·농업용 면세유 지원 등... 11개 사업에 35억원 투입

익산시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총 35여억원을 투입해 △농기계 임대 확대 △스마트 농기계 보급 △농업용 면세유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 기계화로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시는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농작업 기계화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망성면에 북부분소를 조성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했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8,000여 농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 감면을 유지하고, 농번기(3~6월) 토요일 근무와 일요일 상한 근무로 영농 적기 대응을 강화한다. 임대 농기계의 배달 수수료 80%와 굴삭기 임대 수수료 50%를 지원해 경영부담을 줄인다.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 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농기계 보급도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는 4억800만원을 투입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드론 15대와 자율주행 트랙터 키트 5대 등 스마트 농기계를 보급하고, 드론활용 교육도 추진한다.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5억8,800만원 규모로 지난달 사업 대상자 217농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농번기 시작한 5월 전까지 장비 보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2억원 규모의 논농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추진해 파종기와 수확기 등 주요 장비를 보급한다. 이와 함께 농업기계 안전동화장치 보급과 안전 교육을 추진해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영농활동에 필수적인 농업용 면세유 지원도 추진한다.

오는 9월부터 총 975만 리터의 면세유에 대해 리터당 △휘발유 81원 △경유 87원 △등유 91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대표 맛집 선정

대상업소 모집... 25일까지

군산시가 지역 대표 ‘맛집’ 선정을 위한 대상 업소를 1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대표 음식점을 발굴하여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군산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참여 설문조사 △영업자 직접 신청 △의식업 단체 △읍면동 등 시민과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군산의 숨은 맛집을 발굴할 예정이다.

신규 맛집 선정 심사기준은 영업 신고 후 3년이 지난 일반음식점으로 업소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현장평가, 전문가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현재 36곳 군산 맛집이 운영되고 있다.

선정된 업소는 맛집 지정증 수여, 표지판 부착,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위생용품 등이 지원되며, 누리집 및 홍보책자를 통해 대표 음식 소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www.gunsan.go.kr)을 참고하거나 시청 위생과 식품위생계(063-454-3423)에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5년도 상반기

민방위본교육 실시

군산시는 2025년 상반기 민방위 본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실시되는 ‘2025년 상반기 민방위 본교육’은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 20세부터 40세(1985년생~2005년생)의 총 12,500여 명이 대상,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된다.

먼저 집합교육은 1~2년 차 대원을 대상으로 14일~18일까지 5일간 오전 9~오후 1시 군산월명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사이버 교육은 3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3~4년 차 대원은 2시간, 5년 차 이상 대원은 1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간은 14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교육은 24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한국공교육원(kams.or.kr) 누리집에 접속하여 수강한 뒤, 평가 문제 70점 이상을 받으면 이수 처리가 가능하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종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